

사단법인
법인명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Jeonbuk Teenagers Educational & Cultural Center



제17호
2011년 4월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발행인 정우식 / 편집인 김진성 / 발행일 2011년 4월 11일 / 560-837 / 전주시 중화산동 2가 655-8(3층) / ☎ 063) 905-0218 (fax 227-0650)

>>> 더불어 사는 기쁨, 함께 여는 통일 세상 >>>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소식

www.blue21.or.kr



정 우 식
(원장, 이일여고)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8일에 원장으로 취임한 정우식입니다.

늦었지만 지면으로나마 인사 올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앞서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곳곳에서 돋보이는 역량으로 훌륭히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문화원 회원님들과 곁에서 말없이 후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언제나 든든히 함께 하시고 있음을 믿기에 감히 버거운 직책을 받아 안기로 용기를 내었습니다.

기회 닿는 대로 많은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고견을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놀랍도록 헌신하며 문화원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전임 최순삼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임기를 마치고 혁신학교 일에 몰두하시게 될 최선호 전 정책실장님의 오랜 노고에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해 하는 봄입니다.

매화마을엔 매화가 지천이고 산수유마을엔 또 산수유가 흐드러져 아름답건만, 우리 사는 형편을 돌아보면, 아름다움은 자잘하고 두려움은 거대하게 느껴져서 온통 걱정만 만발하여 나부깁니다.

멀리서 날아온 제스민 혁명의 향기엔 희망이 배어 있지만 간간히 진한 화약 냄새가 섞여 있어 일말의 불안감이 가시질 않고, 일본 대지진은 대자연의 힘 앞에서 한갓 보잘 것 없는 우리 인간의 삶을 한없이 겸손하라고 깨우치지만 함께 터진 후쿠시마 원전사고 소식은 여전히 오만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찰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대지진과 원전 사고는 토건국가 일본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것일지 모릅니다. 끔찍한 재앙의 충격을 계기 삼아 풍요로움과 경제성, 효율성만을 앞세운 우리네 살아가는 방식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를 성찰해야 합니다. 손쉬운 풍요로움을 좇는 모두의 욕망이 위험천만한 원자력 발전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미래세대와 같이 나누어 가져야 할 행복과 권리마저 지금 당장의 내 이익을 위해 전부 당겨쓰고 마는 우리의 이기심이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를 냉철히 돌아봐야 합니다.

정치·경제 권력의 추한 욕심은 그렇다 쳐도, 언제나 옳고 선량해야 할 것만 같은 나 자신조차 중심을 잃은 채 주체 못할 욕망에 매달려 경제성, 효율성이라는 강자의 논리에 슬그머니 동조하거나 편승해온 타락과 모순을 새삼 깨닫습니다.

교사인 자신을 돌아봅니다. 학교 현장에도 강자의 논리만이 판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학교든, 교사든 보다 어렵고 열악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것일 터이고, 그것이 진정한 존재 이유일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성적이 뒤쳐진 아이보다는 성적이 뛰어난 아이를 바라보기 일쑤이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보다는 모든 게 갖춰진 아이에게 눈길을 더 주며, 심각한 문제 상황에 빠져서 헤어 나지 못하는 아이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 한 번 제대로 건네준 적 없이 죄인 취급하며 나무라기부터 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수록 그런 자신을 부끄러워 할 줄도 모르게 되어가는 데 있습니다.

봄날 피어나는 새순 같은 아이들의 삶을 생각합니다.

혹독한 입시와 경쟁 교육 속에서 학생 인권을 운운하는 것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입시 경쟁 교육이야말로 아이들의 영혼마저 일상적으로 갉아먹고 황폐화하는 독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학교가 가진 수많은 모순과 교육문제가 이로 말미암습니다. 인성교육, 창의성 교육, 기초 생활 질서 기르기, 생명교육, 공동체 교육 등 우리가 가야할 교육의 방향을 가로막고 있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물론, 단순히 대학입시제도 개선 정도로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것과는 다른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논의와 실천이 새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혁신학교는 그러한 논의의 좋은 출발점이자 실천적 방향 전환의 화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원은 혁신학교의 성공을 위해 힘을 쏟아왔고 수많은 회원들이 학교마다에서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많은 모범을 창출해낼 것입니다. 이번 소식지에 혁신학교 관련 비중이 높은 까닭도 여기 있습니다. 핀란드 교육 이야기도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또 4월 19일에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을 지내신 김진경 선생님을 모시고 혁신학교와 학교 혁신에 관한 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합니다. 혁신학교의 성공에 우리 교육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원 회원님들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문화원이 항상 진정성 있고 모범적인 활동을 지속해올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토대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 혼자 하지 마시고 주위에 있는 소중한 분들에게도 뜻 깊은 일을 함께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회원 가입과 활동 참여를 권하여 주십시오. 참여야말로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임을 믿습니다. 회원 한 분이 한 분씩만 회원 확대를 한다면 이는 곧 재정 안정으로 이어져 우리의 활동을 더욱 탄탄히 받쳐줄 것입니다.

모아진 마음과 정성은 결코 허투루 쓰지 않고, 소중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으로 의미 있게 돌려쓰겠습니다.

화창한 봄날만큼이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도 화사하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기원합니다.

2011년 4월 벚꽃망을 살며시 손 내미는 날에 합장

신는순서

- | | | | |
|----|--|----|---|
| 02 | 인사말 / 정우식 | 15 | 선생님, 이렇게 해 주세요! 선생님, 이런 인상이예요! |
| 04 | 2011 정기총회 | 16 | 교사동아리 탐방 - 책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세상('책만세') |
| 05 | 제26차 이사회- 이사, 감사, 원장 선임
배움터 교육지원사업 선정 - 증서 전달 받아
복지국가 교육정책 토론회 | 18 | 신은철 선생님의 영화읽기
시에 무관심한 시대, '시(詩)'란 무엇인가? |
| 06 | 2011년 복지국가 정책 아카데미 안내
연재 - 최순삼 선생님의 인권교육 이야기 | 20 | 탐방 인터뷰 - 함께여서 행복한 그들
- 임동연, 윤영집 선생님을 만나다- |
| 07 |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 22 | 연재 - 박현숙 선생님의 학급경영 이야기
날개 없는 천사들과 일구는 행복 이야기 |
| 08 | 기획/특집 1 핀란드, 스웨덴 교육 탐방 보고서 | 24 | 황경택 선생님의 생태놀이 체험 "숲속 액자" |
| 10 | 기획/특집 2 2011년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사업계획 | 26 | 신입회원 소개 / 회원동정 / 교육단체 소식 |
| 11 | 2011년 임원, 집행부 소개 | 27 | 회원동정(인사이드) |
| 12 | 혁신학교 수업컨설팅 강사요원교육 직무연수를 마치고 | 28 | 특별 게재 - 홍인재 회원 전북일보 신춘문에 당선작 "탈" |
| 14 | 혁신학교 연수를 마치고 나서 | 31 | '북녘 어린이 공우유 사업' 후원자 모집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회원/후원회원 가입 신청서 |

2011 정기총회

우리 문화원은 2010년에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모범적으로 펼쳐왔다. ‘독서·문화교실/캠프, 청소년 통일한마당, 체험교실, 배움터 교육지원사업, 교사 연수’ 등 실천적 교육활동과 교육행정 감시 및 생산적 대안 제시 활동을 전개하면서 청소년 문화와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해온 우리 문화원이 1년의 활동을 돌아보고 정리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2011년 정기총회를 창립 6주년 기념일인 2월 18일 오후 4시부터 문화원 교육연수실(전주근영여고 앞 3층)에서 개최했다.



정우식 원장 취임, 새 집행부 힘찬 출발

정기총회에서는 그 동안 부원장을 맡아 일해 온 **정우식** 이사가 원장에 취임했다. 지난 4년 간 단체를 이끌어온 **최순삼** 원장은 문화원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부설 청소년교육연구소 소장을 맡는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제1부 정기총회는 2010년 활동/결산 보고, 2011년 사업계획/예산 보고, 꿈장학재단의 ‘배움터 교육지원사업’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에 이어 원장이 취임식, 공로패 수여, 으뜸회원상 시상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공로상은 4년간 원장을 맡아 헌신적 활동으로 우리 문화원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킨 **최순삼**(순창 복흥중) 회원과 4년간 정책실장을 맡아 탁월한 정책적 안목으로 기획하고 헌신하면서 기여한 **최선호**(완주 봉서중) 회원에게 수여했다. 또 한 해 동안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회원에게 주는 ‘**으뜸회원상**’은, ‘읽고살고’ 활동을 하며 어린이 독서교육 분야에서 모범을 창출한 **윤영집**(전주 이증초) 회원과, 연간 가장 많은 회원 확대와 회원 간 우의 증진에 두드러진 모범을 보인 **임동연**(기아자동차 드림대리점) 회원에게 돌아갔다.

창립 6주년 기념 초청강연

총회에 이어 NGO로서의 방향 정립과 도약을 위한 길잡이를 삼고자 마련한 초청강연을 가졌다. 희망제작소 **윤석인** 부소장은 ‘2011 한국사회 진단과 제언’이라는 주제 강연에서 먼저 한국사회의 빛과 그림자, 한국사회의 3대 위기를 진단한 뒤, 시민사회운동의 과제를 제시했다. 또 참석 교사 회원들에게 역지사지, 화이부동(和而不同) 정신을 강조하며, 시민사회운동 참여에 적극 나서줄 것과 무엇보다 아이들 교육에 온 정성을 쏟아줄 것을 당부했다.

행사 뒤에는 다과를 준비하여 조출한 뒤풀이 자리를 가졌다. 특히 **박종관** 회원은 직접 천연염색한 고급 머플러 4점을 경품 선물로 내놓아 회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모두 함께하는 즐거움을 나눈 따뜻한 행사가 되었다.



제26차 이사회 - 이사, 감사, 원장 선임

정기총회에 앞서 2월 10일(목) 오후 6시, 이사장실에서 열린 제26차 이사회에서는 2010년도 결산과 2011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임기가 만료된 이사 8인과 감사 1인을 선임했다. **김명희, 노장환, 서진용, 송승용, 장재성, 한은수 이사**와 **남상팔 감사**는 재임되었고, 이영환, 주중일 이사가 전북교육청 전문직으로 발탁되어 공석이 된 이사에는 **강유희**(전북제일고 교사, 익산교육시민연대 공동대표), **신성하**(전주 서신초 교사) **회원이 새로 선임**되었다. 또 4년 동안 집행부를 이끌어 온 최순삼 원장의 후임으로 **정우식 부원장을 원장에 선임**하였다.



배움터 교육지원사업 선정 - 증서 전달 받아

삼성꿈장학재단(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에서 명칭 변경)의 배움터 교육지원사업에서 탁월한 활동역량을 발휘하며 모범을 만들어온 우리 문화원이 올해에도 다시 선정되어 4,5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지난 3월 31일(목) 오후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배움터 증서 수여식에 이미영 이사장이 참석하여 증서와 명패를 전달 받았다.



복지국가 교육정책 토론회

무상급식 문제를 시작으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복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 사회의 보편적인 관심으로 서서히 논의되기 시작하는 추세에 맞춰 본원에서도 지난 2월 21일(월), 보편적 교육복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복지국가소사이터 사무처장 겸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이상구 박사가 '복지국가를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초발제를 해주었고,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복지 관련 연구원 및 교육복지에 관심을 갖고 같이 고민하는 교사 10여 명이 함께 자리했다.

이상구 박사는 기초연설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의 필요성과 그 실현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특히 교육복지를 단순히 학교라는 제약된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 산업정책, 경제정책 등 사회 전반에 관계된 보다 넓은 차원에서 교육복지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기형적 학교교육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대학교육 문제에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책임과 공공성의 증대 방안을 제시해 참여자들의 폭넓은 공감을 얻어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이론적 모색이 아닌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의 청와대 국장(사회정책) 등의 풍부한 실무경험 및 폭넓은 논의를 통해 우리 교육문제와 현실에 적합한 복지국가 교육정책 추진과 방안을 제시하여 보다 나은 교육복지의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었다.

경제적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서민의 시름이 깊어가는 오늘의 현실, 겉으로만 서민을 위한 정치를 표방하는 MB정부 속에서 앞으로 우리 교육이 나갈 길은 부분적 불만을 해소하고 챙기는 단편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이라는 것이 더욱 확실해져가고 있다.

'2011년 복지국가 정책 아카데미' 안내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국가소사이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1년 복지국가 정책 아카데미'가 지난 4월 6일에 시작하여 5월 11일까지 열린다. 아직 강좌가 남아 있다.

일시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총 6강좌)이며, 장소는 전북사회복지회관 5층 교육장이다.

일자	일자	주 제	강 사
3강	4월 20일	복지국가를 위한 보육 및 교육 정책의 방향	이 상 구
4강	4월 27일	국민연금과 노후소득보장의 현황과 과제	이 태 수
5강	5월 4일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 재정 정책	정 승 일
6강	5월 12일	복지국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개혁	이 종 석

* 문의 : 여성정책연구소 교육사업팀 박신규(063-280-7193) / 조아영(280-7197)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최 순 삼
(부설 청소년교육연구소장)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작년 10월 5일 공포되었다. 새 학기부터 경기도 초·중·고 등 모든 학교와 경기도민이 조례의 규정을 받고 있다. 서울시, 전북 등 진보교육감 중심 지방교육자치단체들도 올해 안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아이들을 ‘권리의 주체’로 보는 학생인권조례는 논쟁 중이다. 보수언론들은 체벌 전면금지, 두발 자유화, 자치활동과 참여의 권리 등이 학교현장을 무질서로 만들고, 교권을 실추 시킨다는 역측을 앞세운다.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를 수 있지만,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갈구해왔다.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인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기준을 규정한 학생인권조례의 함축된 의미를 직시해야 한다.

우선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 사회 인권운동의 소중한 성과물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든 작품이 아니다. 서준식, 박래군 등의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평화인권연대 등 수많은 단체의 헌신적인 인권지킴이 활동. 세계 190개국 이상이 비준한 아동 청소년 인권보호와 권리 신장의 국제적 기준인「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이행에 앞장 선 류은숙, 「인권을 교문 앞에서 멈춘다」로 학교인권실태 고발과 인권교육을 공론화 시킨 배경내, 2006년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대표 발의로 초·중등법 개정을 통한 이른바 ‘학생인권법안’ 제출, 2005년부터 학생인권 운동으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중심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경남교육연대가 2008년부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등. 값비싼 대가를 치른 성과다.

둘째, 학생인권의 공식적 기준을 제시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 12조 및 제 13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18조의 4에 근거하고 있다. 목적은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 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학생인권조례에 담겨져 있다. 국제조약이나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학교현실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체벌 등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 자유’,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등의 자유로운 선택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에 관한 권리’, 소지품검사제한 및 휴대전화소지 등 ‘사생활 비밀의 자유’, 학생회 및 동아리활동과 학교 규정 제·개정 참여, 학교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또 화장실, 냉난방, 문화 활동, 상담 및 돌봄, 급식, 휴식에 관한 권리로 ‘복지에 관한 권리’, 학생인권옹호관을 두어 구제 및 조사사업을 통해 ‘권리침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학생, 학부모, 교사가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감수성을 기르고, 생활화를 위한 ‘인권교육과 인권실천계획’이 담겨 있다.

셋째,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를 변화시킬 계기가 될 것이다. 학생인권이 무시되는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제도와 전쟁수준의 입시제도, 수직적이고 행정편의적인 관료행정에 대한 문제제기의 첫걸음이다. 학생인권조례가 문서로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문제가 우리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로,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인권에 대한 학습과 실천은 이미 시작되었다. 전라북도 교사 75% 이상이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부서 및 기관과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적이라는 판단은 편견이다. 교사들은 교권을 침해하는 주체로 교과부·교육청·학교관리자·학부모 순으로 답했다. (전라북도교육청 인성·인권신장을 위한 T/F 설문) 인권에 대한 학습과 실천은 학생, 교사, 학부모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한다. 상호존중은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 합의를 가능하게 한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일상화 된 학교에서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체벌, 사생활침해, 감당할 수 없는 과잉학습 등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인권친화적인 학교만이 학교혁신을 할 수 있다. ‘교복 입은 시민’, 아이들을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독을 권한다.

핀란드, 스웨덴 교육 탐방 보고서 - 그들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최 선 호 (봉사중)

수입의 50%를 세금으로 내고 그 세금으로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나라 북유럽 복지국가의 모델 스웨덴!

등수를 표시하는 성적표도 없어 경쟁도 없고, 공부시간도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나라! 그럼에도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3번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여 주목받는 나라 핀란드! 그들의 교육은 어떤 모습일까?



부진학생을 위한 보조교사가 배치되어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돕고 있다.

새로운 학교 모델을 만들고자하는 혁신학교 교사들은 지난 2월 6일~2월 14일 (7박 9일)에 '전라북도교육청 핀란드 스웨덴 교육 연수단'의 이름으로 비행시간이 10시간이 넘는 머나먼 연수 길에 올랐다.

우리 연수단 일행은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교육청 2곳과 5개의 학교를 방문하였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수많은 질의와 응답, 토론을 통해 스웨덴과 핀란드의 교육에 대해 좀 많은 것을 알고자 했다. 특히 많은 일정이 핀란드에서 이루어졌기에 핀란드 교육을 중심으로 핀란드와 스웨덴 교육을 10개의 장면으로 돌아보고자 한다.

장면 1 |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가 방문한 핀란드나 스웨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관계자들은 한결 같이 말한다.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지역적인 문제로 인해 자신의 발달을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그들 모든 학교는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대학원까지 등록금이 없다.

여기에 더해 고등학교까지는 전원 무료급식이고, 대학생은 생활비까지 국가에서 지원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무교육에서는 필기도구와 공책, 학습재료비 등 모두 아이들에게 지원된다.

장면 2 | 소외된 아이들이 없게 하라.

그들은 말한다. “학교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중심이 아니라 부진한 학생을 배려하는 교육이 우선이라고.”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서열을 매기는 성적표가 없다.

그리고 성적이 학습목표에 도달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다. 우리가 방문한 라흐티 종합학교에서는 핀란드어(국어) 시간에 학생 20명 중 이민학생 5명에게 개별학습을 하고 있었다. 또한 부진학생을 위한 특수교사가 25학급 규모에서 6명이나 되었다. 특수교사들은 장애아동 뿐만 아니라 부진학생이나 이민자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을 하고 있었다. 또한 부진한 학생을 위한 보조교사제도가 잘 운영되어, 수업시간에 과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특별지원을 한다.

장면 3 | 학생들의 자유로운 삶 그리고 인권 존중

스웨덴과 핀란드의 학교에 막 들어서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2가지의 독특한 모습이 있다. 먼저 학생들의 자유로운 모습이다. 중·고등학생들에게도 두발규제도 없고, 교복도 입지 않는다. 체벌 등은 상상도 못 한다. 마치 대학교에 온 듯 자유스럽고 활기찬 아이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학교 중앙 현관을 막 들어서면 가장 먼저 중앙 현관에 대부분 학생들을 위한 휴게실이 있다. 복도 곳곳에 놓인 탁자와 의자, 학생들은 수업 중간 중간에도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다.

핀란드 고등학교
1층 중앙홀에 커다란 휴게실 겸
식당이 자리잡고 있다.



장면 4 | 학생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다.

핀란드 파비올라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학교에 너무 오래 있으면 학습 능률이 떨어진다. 학생들의 뇌는 휴식이 필요하다. 학습시간은 적절해야 한다.”

그래서 핀란드에서는 고등학생도 오후 4시 이후에는 하교한다. 4시까지가 학교에 남아있는 최대의 시간이라 한다. 학생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문화센터, 도서관에서 다양한 취미 활동,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세계에서 성적 최상위권을 유지한다. 지금도 밤 11시까지 90% 가까운 아이들이 야자를 하고 있는 한국 고등학생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장면 5 | 모두 다 다른 존재로 교육하라.

스웨덴은 노벨상으로 유명한 나라이다. 노벨 박물관 앞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 있다. “make a difference” 모두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다름을 창조하라!

이들 나라의 학교 복도를 지나다보면, 학생들의 예술 작품, 설치 미술들이 복도 곳곳에 있다. 심지어 교실 칠판 위에도 설치미술이 전시되어 있다. 삶과 예술이 연결되어 있었으며, 창의적인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스웨덴 노벨 박물관
“make a difference”

장면 6 | 협동학습은 삶과 생활의 방식이다.

핀란드에서는 종합학교 9학년까지 순위를 매기는 성적표가 없다. 핀란드 사람들은 말한다. “남과의 비교와 경쟁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남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교육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 협동을 통한 학습이 우선된다. 협동학습은 삶과 생활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삶은 서로 다른 의견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 조정하고 협의하면서 보다 나은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이라 한다.

물론 그들의 협동학습은 체계화되고 정형화된 협동학습 모델은 아니었다. 교사가 과제를 제시해주고, 짝꿍이나 앞뒤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협의하고 상의하면서 그 과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모습이었다. 인위적이지 않는 협동학습이랄까?



고교 과학시간에 선생님이 교실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과제 해결을 돕고 있다.

장면 7 | 교육과정의 특성화, 학생 선택교육, 고등학교 무학년제, 선택교과

핀란드 인문계 고등학교는 학년, 학급 구분이 없는 무학년제이다.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취미, 학력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한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과 흡사하다.

그리고 학교는 선택과목과 특별과목을 통해 학교의 특성을 살린다.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거의 비슷한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문계고등학교이면서도 예술교육이나 체육교육, 과학교육, 영양교육 등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학교를 만들어내고 있다.

장면 8 | 사회는 학교와 교사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핀란드의 학교 성적이 높은 이유를 물으면 대답한다. 핀란드에는 훌륭한 교사들이 있다고. 그리고 재정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교를 감시하고 평가하지 않는다. 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문처리 등의 행정업무가 별로 없다. 그리고 학교의 행정은 대부분 교장·교감·행정실에서 담당한다. 교사들은 교과운영과 학급 담임에 집중할 수 있다.

장면 9 | 스스로 손을 움직여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노작교육과 직업학교의 활성화

종합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직접 손을 움직여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어보는 실습 교육이 무척 발달해 있다. 대부분의 종합학교(초중학교)에 제빵실, 목공실에 잘 갖춰져 있다. 생활 속의 교육, 직접 체험하고 제작해보는 교육, 노작교육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갖추어진 공구나 기계도 상당히 전문적인 수준이다.

그리고 고등학교 단계인 직업고등학교가 무척 발달해 있다. 고등학생의 50% 이상이 직업학교에 진학한다. 성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진학한다. 우리가 방문한 KEUDA(깨우다) 직업학교의 자동차과에서는 지역 주민의 자동차를 수리해주시기도 하였다. 지역주민들이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고 있었으며, 직업학교에 대해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직업학교의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확신에 찬 KEUDA 직업학교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실업학교의 전문성이 무시되고, 모두들 인문계고로만 진학하고, 대학교로만 진학해서 입시경쟁이 치열한 한국을 생각해 보게 한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전기톱을 이용해 나무 퍼즐을 직접 만들고 있다.

장면 10 |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대학입학 자격시험

대학 입학 자격시험은 객관식 평가가 아니다.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서술형 평가이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 풀이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대학시험 관리 및 1차 평가까지 전적으로 그 고등학교에서 책임진다. 학교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아르헨티나 고등학교를 방문하던 날 그 학교에서는 핀란드어(국어) 대학 입학 자격시험이 있었다. 그러나 학교는 특별한 일이 없는 것처럼 모두 평상시대로 생활하고 있었다.



휴게실에서 고등학생들이 자유롭게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날은 이 학교에서 대학입학시험이 있는 날이었다.

북유럽의 추운 나라 스웨덴 겨울이 6개월이나 되는 척박한 땅을 가진 나라! 인구 530만 명의 조그마한 나라 핀란드, 그들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아마도 서로 믿고 신뢰하는 문화에서 오는 듯하다. 국가는 학교와 교사를 믿고, 교장과 교사, 교사와 학생이 서로 믿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그들의 힘의 원천이지 않을까?

핀란드와 스웨덴의 교사와 아이들의 밝고 행복해 하는 얼굴을 보며 우리 교육을 떠올린다. 이제 2011년부터 행복한 희망의 공동체 혁신학교를 향하여 한 걸음 한걸음 내딛겠다고 다짐한다.

더불어사는 기쁨 함께 여는 통일 세상 >>>

2011년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사업계획

1. 회원교육 및 연수 활성화

- 회원교육 및 연수 활동: 초청 강연, 교육이야기마당, 인문학 강좌
- 교육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정책 연구 역량 강화

2. 교육소외계층 교육지원 사업 - 배움터 교육지원사업

- 어린이 독서교실/독서캠프
- 청소년 독서교실/독서캠프
- 교사 연수 및 교육복지 정책 개발
- 독서한마당(책 문화축제) 및 자료 보급

3. 어린이/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노력

- 청소년 정책 개발 및 대안 제시
- 청소년 활동 지원

4. 통일운동과 통일교육의 일상화

- 통일 교사모임, 통일위원회 안정적 운영
- 희망 2011, 제 11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개최(6월)
- 북녘 어린이 쿵우유 보내기 사업 지속 전개
- 학교별 통일교육 행사 추동 및 사례 발굴 보급

5. 문화원 역량 강화 및 회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 회원의 자기개발과 친목 활동
- 회원 참여와 단합을 위한 행사: 제3회 문화원 체육한마당 및 배드민턴 대회
- 다양한 기행 및 답사 프로그램 기획 진행
- 집행부서장 역량 강화, 홈페이지 및 교육소모임 활성화/지원
- 회원 확대 생활화로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

2011 문화원 주요 사업 일정

월	월별 사업 내용
1월	• 2011 집행부 정비 및 사업 계획 확정 • 배움터 교육지원사업 선정
2월	• 정기총회/초청강연
3월	• 2011 배움터 교육지원사업 시작 • 중등 독서교실-오리엔테이션(3/26)
4월	• 소식지 17호 발간 • 교육이야기마당(김진경 초청) • 학교독서문화교실(초,중등) 시작 • 문화기행
5월	• 제3회 체육한마당 및 배드민턴 대회 • 교육정책토론회(5/24)
6월	• 제 11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6/11) • 청소년통일길거리농구대회(6/12) • 소식지 18호 발간
7월	• 상반기 활동 결산 • 교육지원사업 상반기 평가 워크숍
8월	• 초·중 독서캠프 - 방학 중 • 문화기행
9월	• 교육이야기마당
10월	• 소식지 19호 발간 • 환경·생태 역사·문화 기행 • 독서한마당-책 문화축제
11월	• 교육이야기마당
12월	• 문화원의 밤 • 제7회 전북청소년교육문화상 시상 • 소식지 20호 발간
연중	• 학교독서교실(초·중등)/문화원 독서교실(초·중등) 월 1회 • 운영위/집행위원회 회의 • 각 부서별 모임/교사 소모임별 모임, 교육정책연구모임 • 초·중등 독서교실, 학교독서문화교실(초,중등): 월 1회 • 초·중 독서캠프-여름방학 1회 • 교육이야기마당, 기행: 분기별 1회 • 소식지: 연 4회 발간

2011년 임원 및 집행부 소개

• 임원 소개

직책	이름	직장
이사장	이 미 영	전주공고 교사
	강 유 희	전북제일고 교사
	김 명 희	부안보안중 교사
	노 장 환	전주서신초 교사
	문 채 병	고창교육청 교사
	박 기 업	전주고 교사
	서 진 용	정읍입암중 교사
	송 승 용	김제원평초 교사
	신 성 하	전주서신초 교사
	장 재 성	전주서중 교사
	정 우 식	이일여고 교사
	정 은 숙	전주만수초 교사
	최 병 흔	전북체육중 교사
이사	최 순 삼	순창북흥중 교사
	한 은 수	원광고 교장 교사
	남 상 팔	이리공고 교사
감사	조 경 희	전주인봉초 교사
	김 윤 수	전주술내고 교사
고문	박 일 범	순창제일고 교장
	송 병 주	(사)지역농업연구원 이사장
	이 광 철	전 국회의원
	최 규 영	진안문화원장
자문 위원	김 영 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집행위원장
	김 영 춘	전주술내고 교사
	박 세 훈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
	안 도 현	우석대 문예창작과 교수
	황 만 길	(사)지역농업연구원 원장

(이상 가나다 순)

• 집행부 소개



원장 정우식
(이일여고 교사)



부원장 송승용
(김제원평초 교사)



부원장 김현봉
(전주용소중 교사)



연구국장 최순삼
(순창북흥중 교사)



연구국장 최선호
(원주봉서중 교사)



사무처장 노장환
(전주서신초 교사)



조직국장 경종호
(전주효림초 교사)



조직부장 노영운
(김제초처초 교사)



연대사업국장 임동한
(기아자동차)



정보통신국장 구자상
(이리공고 교사)



총무국장 이선화
(사무실 상근)



정책기획실장 신성하
(전주서신초 교사)



편집국장 김진성
(원주비봉초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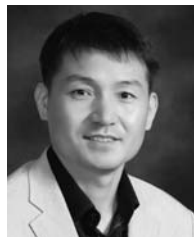
편집부장 전지민
(전주서신초 교사)



교육연구국장 손춘임
(전주여고 교사)



교육연구부장 진상덕
(순창동산초 교사)



독서교육실장 최봉석
(전라고 교사)



어린이독서교육국장 최상렬
(전주서신초 교사)



청소년독서교육국장 황희경
(전주오송중 교사)



문화예술국장 윤영집
(익산금마초 교사)



청소년문화국장 유인선
(진안동향 교사)



어린이문화국장 김진만
(전주인후초 교사)



통일교육실장 류정아
(전주여울초 교사)



통일교육국장 조인항
(전주금평초 교사)

이번 호에는 시론을 대신하여 혁신학교와 관련하여 지난 겨울방학과 봄방학 중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한 '혁신학교 수업컨설팅 강사요원교육 연수과정'에 참가한 두 분 선생님의 연수 참가기를 실는다. 한 분은 중등교사로 아직 혁신학교 지정이 되지 않은 학교에 근무하고, 한 분은 혁신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 교사이다. [편집자 주]

혁신학교 수업컨설팅 강사요원교육 직무연수를 마치고

김명희 (이사, 보안중)

갈망이라고 할까? 날마다 칼 위에 선 무당 같은 아슬아슬함, 아님 영악하리만치 세태변화에 민감한 아이들과 답답하다 못해 화가 치밀 만큼 제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며 날마다 아이들과 대립각을 세운 채 세월을 소진하고 있는 교사들. 열정을 다 바친 수업이라 감히 자부하면서도 아이들의 주체성과 자발성과 창의성은 그야말로 밥 말아먹은(?) 듯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에서 정말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수업을 마칠 때마다 쏟아지곤 했던 허덕임과 채워지지 않는 2%, 허탈함과 허허로움……. 이리다 퇴직할 때까지 제대로 된 교육한 번 실컷 못해보고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과 허망의 크기만큼 뭔지는 잘 몰라도 정말 살맛나는 교육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갈망이 문득문득, 아니 날이면 날마다 고개를 쳐들곤 하는 나날이었던 게다.

새 교육감 체제가 들어서고 술한 변혁의 달콤한 아우성 속에서도 단연 몸과 맘을 깨우고 자석에 이끌리듯 저절로 이끌린 건 역시, 결국 '혁신학교' 였다. 수차례에 걸친 '혁신학교' 관련 연수에 부지런히 참여하고 논의하고, 아예 모임까지 만들어 공부하고 했던 것은 나, 그리고 우리가 찾던, 교단에 발 딛던 때부터 아니, 더 정확히는 교직에 마음을 품었던 훨씬 그 전부터 꿈꾸고 갈망했던 바로 '그 교육-재미있고 신나고 의미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을 '혁신학교' 로 해낼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아서였을 게다. 그 일에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 정열과 인내를 대가로 치르더라도 그것이 유의미하다면 몸 사를 가치가 있을 것이었다.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그만큼 절실하였다.

지난 1월 24일에 전라북도교육연수원에서 만난 이들은 그런 우리들이었다. '혁신학교 수업컨설팅'이라는 연수제목만 보고, 단위학교 혁신학교 추진담당자여서, 도 단위 혁신학교 담당자들, 그리고 나같이 혁신학교에 지대한 관심 때문에 모인 이들까지 다양한 사연으로 모인 우리들의 연수 제목은 정확히는 '혁신학교 수업컨설팅 강사요원 교육 직무연수' 였다. 하지만 분위기로 보아 모인 대다수는 아마도 나를 포함하여 뒤에 붙은 '강사요원교육'이란 말은 못 봤거나 봤어도 생각 못하거나, 아니면 애써 모르고 싶어 하는 듯 싶었다. 그만큼 그 말은 연수 내내 연수자들에게 부담스러운(?) 대목이었다.

이번 연수는 1월 24일부터 6일, 다시 2월 14일부터 5일, 이렇게 11일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상당수 중년을 넘긴 연수자들의 연배를 고려해봤을 때, 실은 그 누구라도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을 포함하여 진행된, 심지어 때론 아침 8시에 시작되기도 했던 자타가 공인한 꽤나 무리한 연수였다. 실제로 우리 부안에서는 혁신학교 중등 공부 모임에서 4명이 참석했으나 연수기간 내내,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맘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지만 몸만큼은 끊임없이 비명을 질러대 아직까지 여러 명(?)이 의료기관의 도움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 그 근거가 될 수 있겠다.

그러나 내용만큼은 무엇보다 알곡을 콕콕 채워, 크게 '프레네 교육, 배움의 공동체, 아이 눈으로 수업보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풍부한 내용과 양으로 보아서는 연수기간이 턱없이 부족하였음을 말 안 해도 알 것이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교육내용을 최고의 강사진을 모시고 그 짧은 기간에 공부할 수 있었던 것

은 연수자들의 행운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런 만큼 연수원 측에서도 놀랄 만큼 우리들은 집중력과 배움의 열정에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거의 쉬는 시간도 없다시피 하며 본연수 시간을 넘기기 일쑤인 연수 일정을 묵묵히, 더군다나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꿋꿋이 버텨내는 성의로 답했다.

말로만 듣던 ‘프레네 교육’과 관련해서는 단연 기다림과 인내, 자발성, 민주주의, 자연, 자유와 자율 등의 단어가 떠오른다. 교사는 수업의 체계와 규칙과 준비를 갖추고 수업에 임하지만 각각의 수업에서 나타나는 무수한 상황과 학습자들의 반응에 따라 언제든지 융통성 있게 학습자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되곤 하는 수업을 보며 한편 꿈만 같고, 그런 교육이 공교육에서 가능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 그리고 더구나 우리나라같이 입시에 목숨 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았다. 물론 우리 대다수가 프레네 교육을 받는 교실 현장에서 학습자로 존재하기를 꿈꾸었던 걸로 보아 학습자에게 좋은 교육임엔 틀림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하였다. 대안학교에서는 당장 도입이 가능하리라고 여겨졌고 초등학교나 교사 개인마다 정도에 따라 활용할 여지가 큰 교육인 것 같다. 중등에서는 당장 ‘꾸아드네프-아침마다 학급 구성원들이 전날 하고 후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며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프로그램’ 활용은 담임 중심으로 가능할 것 같고, 다른 수많은 교육방법이나 철학도 우리나라와 우리 시대, 우리 학교에 맞게 변화시켜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교육이었다고 평가된다.

‘배움의 공동체’는 타 지역 혁신학교들의 사례를 비롯하여 최근에 많이 알려졌는데 이는 아마도 일본의 교육역전이 우리나라와 많은 부분 일치하는 데에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 ‘수업이 바뀌어야 학교가 바뀐다.’라는 책으로 더 유명한 일본 동경대학교의 사토마나부 교수에 의해 주창되어 일본 교육개혁의 희망으로 자리 잡고 우리나라에도 도입된 지 10여년. 여러 학교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는 모습이 이미 마스크 등을 통해 전국에 걸쳐 알려졌지만 다시금 모두들 부러움과 감동의 도가니가 된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 배워가며 성장하며 배움에서 단 한 명의 낙오자도 만들지 말자는 ‘배움의 공동체’. 교사들의 잡무는 교감선생님과 교무보조가 맡고 교사들은 그야말로 수업연구에 올인하는 꿈의 학교, ‘배움의 공동체’를 모델로 한 ‘혁신학교’들이 더 많이 탄생하지 않을까하는 전망이다.

연수 전부터 이러저러한 과제와 준비물들을 요구하여 연수자들을 못내 불편하게 하였던 대구 카톨릭대 서근원 교수님의 ‘아이 눈으로 수업 보기’는 교사의 인내와 끈기를 보여주고 시험하는 정수였다고 말하고 싶다. 교사 중심의 수업보기가 아니다. 그렇다고 아이들 모두를 보는 것도 아니다. 오직 수업에 참여한 한 아이만을 숨쉬기조차 조심스런 집중력으로 수업 내내 관찰하며 적고 논의하기를 세 번. 놀라운 것은 한 시간의 수업 시간에 한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배워 가는지를 처음으로 알고야 말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수업 전체를 보았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이었다. 때론 의미 없어 보이고 때론 지치거나 지루하게조차 느껴졌던 과정을, 인간이 되고자 썩과 마늘을 먹으며 견디었던 꿈의 정기로 버텨내 얻은 놀라운 결과에 비로소 이 연수가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배치되었는지, 왜 그렇게 매일의 개인과제와 모둠과제로 우리를 말려 죽이려(?) 했는지 한꺼번에 이해되고 그동안의 노력이 전혀 아깝지 않게 되었다.

아이들을 다시 봐야겠다. ‘아이들’로 보지 않고 ‘아이 하나하나’로 봐야 한다. 어설프지만 결국 위 세 교육 모두는 교사가 아닌 아이들을 중심으로 교육의 새 판을 짜라고 우리에게 호령하고 있다고 정리해본다. 살인적인 연수일정을 무사히 마치고도 피곤한 얼굴엔 답을 찾은 이들의 설렘과 기대의 희망이 무너지어 있다. 이 뜻 깊은 연수에 함께 한 동료들에 대한 강한 신뢰와 동료의식이, 교육부 시계가 어서 돌아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이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결국 아쉬움의 사진촬영을 하고도 서로를 격려하며 헤어질 줄 모른다. 큰 숙제 하나를 풀고 또 다른 짐을 한 아름씩 짊어지고도 이 많은 동료들이 또한 그 짐을 함께 짊어질 것을 믿기에 모두가 소중할 밖에. 그렇게 우리는 현장에서 그리고 수시로 함께 교육동지로 만나기를 바라며 학교로 돌아왔다.

혁신학교 연수를 마치고 나서

노 장 환 (전주서신초, 사무처장)

성공적인 혁신학교를 위한 연수가 있었다. 혁신학교 수업컨설팅 강사요원교육이라는 연수과정으로 90시간 연수였다. 하루 8시간 이상씩 진행된 연수다. 크게 기본 교양과정과 프레네교육, 배움의 공동체, 아이 눈으로 수업보기로 진행되었다.

교양과정에서 교사로의 삶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시간,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에 대한 생각을 더욱 알차게 또 이해하는 눈으로 봐야 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프레네 교육은 1920년대 초 프랑스의 농촌 교사 셀레스탱 프레네가 중심이 되어 시작한 개혁교육학과 대안 교육운동이다. 이 교육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대안교육"의 범주에 속하면서도 공교육제도를 단순히 외면 하지 않고, 오히려 공교육제도 안에서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교육학이 생명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론가들이 아닌 현장교사들에게서 나온 교육학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이 교육학과 함께 언급되는 것이 "교사운동"이기도 하다.

프레네 연수과정이 철저히 자율에 기반을 둔 연수였다. 가르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아닌 배우는 자 학습자의 자율에 맞추어 조직되는 교수 학습의 과정이었다. 개인적으로 참으로 마음에 들었다.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참 힘들겠지만, 자율과 책임으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이상적이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교사들이 있다는 게 힘이 되었다.

배움의 공동체 교육은 교수 학습 과정에 많은 중점을 두었다는 생각을 해본다. 협동학습, 협력학습에 기초하며 서로에게 배움을 주는 형식을 조장해가는 방식이다. 교사의 도움보다는 서로에게 배움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다. 내가 연수를 통해 본 가장 큰 장점은 기본과정에서 좀 더 심화과정으로의 접근 방식이다. 점프단계를 통한 심화과정의 모색이 너무 색다르게 다가왔다. 물론 수업 후 수업협의 방식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다. 하지만 배움의 공동체 수업은 교수 학습 과정의 모형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일주일간 아이 눈으로 수업보기 연수 아니 워크숍을 했다. 말 그대로 워크숍이다. 커피숍은 돈을 주면 커피를 주는 것처럼 이번 워크숍은 정말 돈을 지불하고 일을 사서 하는 과정이었다. 진정한 워크숍이 무엇인지 알게 된 소중한 기회였다.

교실에 존재하는 수업이 지금껏 교사 중심의 수업이고 협의 또한 교사 중심의 수업이었음을 절감한다. '수업이 교실에 존재하는 아이들 수만큼 존재한다.' 라는 생각을 아주 절감하면서 정말 하나하나 아이의 수업을 눈으로 보고 그 아이에게 맞는 수업의 방법이 무엇인지 교사는 어떻게 하나하나 아이에게 다가가는 수업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찾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연수였다.

수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게 만든 혁신적인 연수였다. 내 스스로 대충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연수에 임했다가 그래 한번 교수님이 하지는 대로 나를 맡겨 보고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그때 해결해야할 과제도 즐거운 기분으로 나를 만들어 간다는 기분으로 열심히 했다. 그렇게 워크숍을 해가는 과정이 협력학습이었고 토론 수업이었고 주제 탐구 수업인 프로젝트 수업이었다. 즉 연수가 진정한 일을 하는 자리이고 일을 통한 것이 자연스러운 공부라 되었다. '그래, 내가 이런 것을 몸으로 체득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토론과 협력 수업이 중요함을 알지만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과 몸으로 알고 있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몸으로 익힌 공부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보람을 느끼는 멋진 생활을 해 보리라.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지금 이 순간 한걸음을 먼저 내딛으라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일단 한발을 내딛어 보리라.

선생님, 이렇게 해 주세요! 선생님, 이런 인상이예요!

선생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의 관계이며 아이들의 생각이다.
새 학년 새 학기 관계의 시작에 선 선생님과 아이들.
아이들의 선생님에 대한 생각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바라는 모습은 무엇일까? 선생님을 처음 본 소감은 어떨까?
아이들의 생각들을 짧게 모아보았다.

우리 선생님은 우리 바르게 가르
쳐 주실 거라고 부모님께서 말씀
하셨다.

(초등학교 5학년 황○○)

우리 선생님은 착하시지만 무서울 때도
있다. 공부는 빠짐없이 끝까지 가르쳐
주시고 숙제는 조금 내신다. 올 쌤은 착
하셔서 수업도 재밌고 우리가 하고 싶
은 것을 들어주실 때가 있다. 우리 모두
에게 친절히 대하시는 우리 쌤이 너무
나도 좋다.

(초등학교 5학년 정○○)

지금은 새학기라서 게다가
중학생도어서 적응하기도 힘들데
숙제를 안해주시거나
조금만 내주세요!

(중학교 1학년 김○○)

선생님은 지상하셨다. 애들이 아
프면 걱정해주시고 애들이 애
들한테 특수염으로 장난도 치신
다. 그리고 애들이 수업 중에 농
담을 하면 잘 웃어주신다.

(초등학교 5학년 송○○)

처음 선생님을 만났을 때 남자 선생
님 이셔서 긴장도 하였고 무섭기만
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다정하시기
도 하고 재미있으신 선생님이 참 좋
다. 1년 동안 선생님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

(초등학교 5학년 조○○)

중학교 생활도 초등학교 생활처럼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즐겁게 수업해주세요.
- 쌤님 ~♡

(중학교 1학년 이○○)

쌤님 ~♡
오호호호 넘호 귀리썩마 이썩세용.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오 ~ 우힛

(중학교 1학년 박○○)

쌤, 이번 1학기 잠나게 보내고
맛난 거 많이 사주세요.ㅎㅎ

(중학교 1학년 최○○)

선생님, 저는 친구들을 공평하게
사랑해 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앉고 싶은 친구와도
앉게 해 주세요.

(초등학교 4학년 전○○)

우리 선생님은 친절하게 보셨다.
여자라서 더 좋은 것 같다.
착한 선생님처럼 보셨다.

(초등학교 4학년 김○○)

우리 선생님이 화를 잘 안내시고
더 다정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가끔 놀아주시는 선생님이면
참 좋겠다. 또 항상 공평하면
좋겠다.

(초등학교 4학년 김○○)

고민, 걱정 같은 걸 다 들어주는
선생님, 수업을 재미있게
진행하시는 선생님이면 좋겠다.

(초등학교 4학년 김민지)

책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세상 (‘책만세’)

책만세의 출발

2003년 여름, 최병훈, 문채병, 신은철, 이형월 선생님이 주축이 되어 1회 독서캠프를 운영하면서 첫 출발하였다.

학교교육에서 교과서는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 무적(無敵)의 텍스트는 아니다. 이에 뜻을 함께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좋은 읽기자료를 제공하고, 다양한 독후활동을 통해 독서의 의미와 가치를 체득할 기회를 주기 위해 독서캠프를 기획하여 실행에 옮겼다. 당시에 이미 사교육 단체에서는 상당히 비싼 참가비를 받으며 독후학습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독서캠프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책만세 독서캠프는 현직 중등교사 20~30여명이 지도교사가 되어, 캠프에서 학생들이 하루 1권씩 책을 읽고 다양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체험한 후, 모둠별로 결과물을 발표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하였다.

100여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모여 진지하게 책을 읽는 모습은 조용하지만 벽찬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교사들이 기대한 이상으로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놀라운 결과물을 보여주었다. 이에 자신을 얻은 교사들이 1회성 기획 행사로 그치지 않고 매년 독서캠프를 운영하게 되었다.

참여 교사

신은철(삼례중), 이형월(삼진중)
최봉석(전라고), 유인선(진안동향중)
최제윤(진안안천중), 조해양(신일중)
황희경(전주오송중), 이신영(곤지중)
서유진(남원하늘중), 오도영(예술고)
정선아(전주동중), 정은경(원주중)
안정임(전북기계공고), 박현숙(진안 동향중)
방미옥(왕궁중), 안수미(관촌중)
이주환(진안중), 문채병(고창교육청)
백운신(순창), 엄지혜(경남), 박현정(충남)

책만세가 하는 일

1년 동안 책만세는 청소년 독서교실과 독서캠프, 문학기행을 운영하는 활동을 주로 한다. 독서교실은 매월 1회 쉬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진행한다. 학생들은 책만세에서 연초에 제시한 도서를 매월 1권씩 읽고 참여한다. 교사회의를 통해 준비하고 구성한 활동을 실시한 후, 간단한 인물 청문회, 영화 읽기, 뇌구조도 그리기, 인터뷰, 모둠별 게임, 모둠 토의 등 다양한 독후활동을 하면서 책과 친해지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처음엔 여름과 겨울 두 차례 실시하다가 지금은 여름방학 중에만 여는 독서캠프는 3박 4일 일정으로 2~3권의 책을 읽고 ‘저자와의 만남, 연극, 토의?토론, 독서신문 만들기, 만화 그리기, UCC 만들기’ 등 다양한 독후활동을 모둠별로 진행하고,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독서캠프는 내용 준비에만 적어도 3~4개월 이상이 걸릴

정도로 쉽지 않은 활동이다. 캠프에 필요한 물품 준비도 현직 교사들이 직접 담당한다. 현직에 근무하면서 감당하기에는 업무량이 엄청난 탓에 캠프 종료 후 지도교사들은 체력이 거의 바닥나므로, 남은 방학 기간 동안엔 칩거를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해야만 다음 학기를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이다.

매년 가을에 실시되는 문학기행은 책의 내용이나 작가와 관련된 장소를 찾아 떠나는 하루 동안의 여행이다. 기행지에서 실시되는 반짝 퀴즈대회와 좋은 글귀 낭송 등의 활동을 통해 새롭게 작가나 책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된다.

이 세 가지 활동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매주 1회의 만남을 갖는다. 독서캠프가 다가오면 1주일에 두 번 이상 만나기도 한다.





바쁜 학교생활 후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같은 것을 고민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피로를 잊을 수 있다. 책만세에서 이루어지는 독서캠프, 독서교실, 문학기행의 내용은 책만세 회원들의 학교에서 독서 동아리 형태로 재창조되어 진행된다.

책만세를 통한 교사들의 자기 성장

청소년 독서교실 수업은 공개 수업이다. 학기 초 대략의 도서와 담당 교사를 정한 후, 모든 교사들이 회의를 통해 함께 수업지도안을 짜고 수업 내용을 준비한다. 실제 수업에서는 1명의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다수의 교사들이 보조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원활한 흐름을 유도한다. 공개적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므로 처음에는 부담이 컸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 교사들을 보면서 서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한다. 이런 공개 수업이 책만세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켰음이 틀림없다.

독서캠프는 참여 교사들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주었다. 작가를 섭외하고, 모둠 게임을 진행하고, 모둠별 독후 활동 발표 준비를 하면서 교실 수업과는 다른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리더십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레크리에이션 강사 수준의 현장지도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주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 동아리 활동을 이끌 수 있는 저력도 여기에서 키워진 듯하다.

문학 기행은 도서를 선정할 뒤, 관련 현장의 답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짜고, 내용을 만드는 힘든 작업이다. 교실이 아닌 야외에서 진행하는 것이기에 교사들의 긴장감도 크다.

교육의 희망을 발견하기가 힘든 교육 현실에서 책만세 교사들과의 만남은 교직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발견을 하는 뿌듯함, 먹먹한 감동이 있다. 독서교실, 독서캠프, 문학기행에서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긴장감이 책만세 교사들을 성장시켰다고 자부한다.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지난해는 특히 독서교실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한 한해였다. 월별로 다양한 수업 모형을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12월 독서교실에서는 우리 사회의 여러 직업군의 멘토를 초청하여 인터뷰를 시도해보는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과감하게 실천하였다. 외부 인사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책만세 선생님들의 폭넓은 인맥과 추진력에 감탄하기도 했다. 작년 한 해는 독서교실의 영역 확장의 뿌듯함을 느낀 한해였다. 책만세의 노력과 성과를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외부 평가에서도 인정받는 경사가 있었다. 2010년 전라북도교육청 교과연구회 중에서 최우수 교과연구회로 선정된 것이다.

최우수상 수상으로 기쁨만이 아니라 부담도 적지 않다. 책만세 활동을 지켜보는 시선이 많다는 것이 앞으로 활동하면서 부담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져가는 동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책만세는 국어교사들만의 소모임이 아니다. 그런데도 현재 구성원을 보면 국어교사가 대부분을 차지해 활동하면서 그로 인한 한계와 어려움을 절감하고 있다. 책만세는 다양한 교과와 더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여 독서교육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시에 무관심한 시대, '시(詩)'란 무엇인가?

-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2010)를 보고 -

신은철 (삼례중)

선생님,

새벽에 일어나 오랫동안 버리고 버려던 영화, 이창동 감독의 '시'(2010)를 봤습니다. 폭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재미있게 보았지요. ('재미있게'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요, 왜냐면 이 영화가 다루는 소재와 주제는 그리 가벼운 건 아니니까요. '죽음, 병듦, 나이듦, 자살, 성폭력, 고통 받는 삶' 등 피상적으로만 보면 어둡고 무겁지요. 아름답고, 낭만적이고, 순수한(?) 시(우리가 시하면 떠올리는 굳은 생각들 말이에요.) 어찌면 이런 순수한(?) 문학소녀의 마음으로 가볍게, 한 폭의 맑은 수채화처럼 이 영화를 보고봤던 사람은 살짝 실망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래서 영화 처음에는 저도 살짝~ ㅎ

저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시'라는 제목과 영화의 내용이 어우러져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그냥 두서없이 얘기해 보자면요, 이 영화에서 시는,

1. 시(屍): 주검, 죽음

영화는 강물, 다리, 산, 나무...(첫 장면부터 영화는 상징적입니다. 특히 강(물)과 강물 위로 이는 잔물결은 삶과 죽음, 현상과 실재에 대한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강가에서 놀던 아이들이 떠내려 오는 한 소녀의 주검을 발견하며 시작되지요. 이 영화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소녀의 죽음(소녀의 죽음은 피해자 가족에게는 물론 가해자 가족들에게도 죽음과 같은 체험이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죽음이지요.), 미자의 치매 증상과 병든 노인, 기억을 잃는 다는 것과 병에 든다는 건 죽음의 전조이지요.

그리고 미자가 소녀의 집을 방문하는 장면은 신화의 하계(저승)여행에 해당하지요, 물(저승)을 건너고, 대문에서는 개(저승의 문지기, 케르베로스)가 쫓지요. 마루 위 액자의 사진 속에서는 붉은 꽃(피, 죽음) 뒤에서 소녀(죽은 이)가 웃고 있지요. 미자는 소녀의 죽음을 통해 삶에 대한 통찰과 타인의 고통에 대한 참여를 하게 되지요. 이것을 통해 자신의 안에 고이는 약수(자기 중심성을 초월, 시)를 길어 올리게 되고요. 이 장면에서 부모님의 생명을 구하러 서천서역에 약수를 구하러 간 '바리데기'도 떠오르고, 하데스(하계)에 아내 에우리디케를 찾으러 간 오르페우스, 영생의 비밀을 알기 위해 우트나피쉬탐을 찾아 갔던 길가메시도 생각났습니다.

2. 시(時): 시간이 주는 상처

주인공 양 미자는 이혼한 딸이 맡긴 외손주 육이와 둘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65살의 여인입니다. 영화 속 등장인물들은 시간(크로노스 Cronos)이 주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요. 미자도, 육이도, 노인도, 소녀도, 가족들도. 한 소녀의 자살과 그 사건에 관련된 많은 이들. 이 영화는 '우리들은 시간이 주는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보편적인 질문을 하고 있지요. 먼 나라의 어느 시인이 읊었듯이 어찌 '상처 받지 않은 영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등장인물 하나, 하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과 거울로 보였습니다.

3. 시(市): 마을, 사람 사는 도시, 우리 공동체

미자가 살고 있는 곳은 중소 도시입니다. 선생님과 제가 삶이 주는 아픔과 슬픔을 느끼며 살아가는 곳. 학교도 있고, 집도 있고 이웃들이 있는 곳. 미자는 소녀의 자살에 손자 육이와 친구들이 관련 됐다는 날벼락 같은 이야기를 사건에 관련된 다른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듣게 됩니다. 미자가 사는 도시는, 소녀의 죽음은 우리 세대의 비유로 읽을 수 있겠네요. 물욕과 환락의 단맛에 젖어 양심을 잃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도시(요즘 세대)에 대한 알레고리.

4. 시(施): 베품, 보시, 자비, 다른 이의 슬픔에 대한 동참(Compassion)

미자는 이웃집 병든 노인(김희라 분. 처음엔 노쇠한 그를 못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했던 젊은 날의 이미지만을 기억하고 있던 저로서는 그의 모습이 처음 잠깐은 불편하기도 했습니다.)의 간병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욕을 시켜주던 병든 노인에게서 해괴한(?) 청을 받고는 화를 내며 그 집을 도망치듯 나오지요. 그러나 그 후 다시 돌아와 노인의 청을 들어주는 장면은 처음엔 충격이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다른 이의 고통에 눈뜨는 미자의 삶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표현해 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가 아무 말 못하고 돌아오던 미자, 돈이면 다 해결 되냐며 다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묻던 미자, 미자는 피해자 쪽에 돈이 아닌,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닌 진심어린 사죄와 속죄를, 피해자의 슬픔과 고통을 자신의 마음으로 느끼고 위로하고 싶었겠지요, 그런 미자가 소녀의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돈 몇 푼으로 피해 가족들의 상처가 아물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5. 시(視), 마침내 시(詩): 시에 무관심한 시대에 시란 무엇인가?

미자는 마감된 '시 쓰기' 교양강좌에 가까스로 참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강사인 김용탁 시인(김용택 시인 분)에게서 시를 쓴다는 것은 주변의 사물을 마음을 다해 보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강좌를 마칠 때는 시 한 편씩을 제출하라는 숙제를 부여받게 되지요.

그로부터 미자의 시 쓰기 노력은 눈물겹게 시작되지요(시도 때도 없이 수첩을 들고 다니며 메모하는 미자의 모습이 엉뚱하면서도 귀엽습니다.). 그러나 미자에게 시상은 그렇게 만만하게 잡히지도, 시가 쉽게 써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미자는 소녀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몸소 거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과 타인의 고통에 대한 참여를 이루어 내지요. 미자는 소녀의 집에도 직접 찾아가보고, 과학실에도 그리고 소녀가 생을 마감한 다리 위에도 가보지요. 이런 행동들은 소녀의 죽음을 자신의 아픔처럼 받아들이는 미자의 순수함을 잘 보여주지요. 그리하여 미자는 마침내 자신의 안에 고인 약수(나와 공동체가 구원에 이르는 길 바로 자기중심성에 대한 초월, 시를 쓴다는 의미)를 끌어 올리게 되지요.

이 영화는 우리가 어떻게 한 편의 좋은 시를 쓸 수 있느냐의 이야기이면서, 전작 '밀양'(2007, 이창동 감독, 전도연 주연)에 이은 상처 입은 영혼과 공동체가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로도 읽힙니다.

선생님, 영화 속 김용탁 시인의 말처럼 사람들이 시를 읽지 않는 시대, 그리고 언젠가 올지도 모르는 아무도 시를 읽지도 쓰지도 않는 시대, 생각만 해도 쓸쓸해집니다.

저는 또 선생님은 어느 쪽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나요? 시인가요, 그 맞은편인가요? ~ ㅎ

영화는 시작할 때 보여주었던 강물, 다리, 산 등을 다시 보여주며 의미심장하게 끝을 맺지요.

| 함께 보면 좋아요 |



일 포스티노

마이클 레드포드 감독, 필립 느와레 주연,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1994

순박한 집배원이 유명한 시인에게 편지를 배달해 주면서 자신의 순수한 자이를 발견하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엮어낸 작품. 노벨 문학상 수상에 빛나는 세계적 명성의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가 1952년 본국 칠레에서 추방당한 후, 이태리 정부가 나폴리 가까이의 작고 아름다운 섬에 그의 거처를 마련해 준 실화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일 포스티노'는 이태리어로 '집배원(Postman)'이라는 뜻이며, 주연을 한 마썸모 트로이지는 영화의 내용처럼, 영화 촬영이 끝난 직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출처: 네이버 영화〉

지난 문화원 정기총회에서 행복한 두 사람을 만났다. 바로 으뜸회원상을 수상한 임동연 회원님과 윤영집 선생님이 그들이다. 그들이 있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한데 그들에게 행복한 소식이 전해지니 더욱 행복한 시간이었다.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짝막하게 이야기를 담아본다.

함께여서 행복한 그들 - 임동연, 윤영집 선생님을 만나다.-

#수상소감

“나야, 감사하다.”

수상소감을 묻자 대뜸 나온 대답이다. 시원한 소감 말에 웃지 않을 수 없다. 큰 소리로 웃어젖히고 난 후 다음 말을 기다렸다.

“생각지도 못한 거라서 더 감사하다. 난 교사도 아닌데,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상까지 주니 감사할 수밖에... 그래서, 미안하다.”

그렇다. 그의 말은 항상 편하고 쉽다. 그래서 친밀하다. 하지만 그의 말속에 깊이와 진정성이 들어있다. 이런 사람이 임동연 회원이다.

#참나무 같은 사람

임동연 회원은 시민단체 ‘시민행동21’의 소모임「꽃다지」에서 ‘참나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참나무인 이유가 궁금하여 슬쩍 물어보았더니 역시나 시원하고 유쾌한 대답이 나온다. 오래된 숲일수록 침엽수가 모든 식물을 장악하고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서는데 그런 침엽수를 누르고 결국 숲을 장악하는 것은 참나무란다. 그래서 자신의 닉네임이 참나무란다. 나무들의 우두머리라나? 하지만 얘기가 이어지자 이런 말들이 덧붙는다. 참나무는 참으로 쓸모가 많은 나무라고. 뿔감으로도 쓰이고, 도토리를 주어다 도토리묵도 쪄먹고, 숯으로도 이용된다고. 쓰임이 많아 인간과 가장 가까운 나무라고... ‘참’이라는 말 자체도 참 좋다고...

그와 잘 어울리는 나무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과 가까운 그와 다른 사람에게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의 삶이 참나무와 ‘참’ 잘 어울린다.

#영입의 달인

현재 그는 기아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영입의 달인으로 등극된 지는 이미 오래다. 일이 즐겁다 말하고 자신과 잘 맞는 것 같다 말하는 그의 긍정철학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닌가 한다. 그런데 그는 또 영입의 달인이기도 하다. 현재 문화원 회원 수를 가장 많이 영입한 회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다. 편안하고 친근한 그의 화술과 진정성이 사람들에게 문화원 회원가입원서를 쓰게 만드나 보다. 이러한 능력을 인정받아서일까? 지난 정기총회에서는 회원을 영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3분 특강을 하기도 했다.

#우리 문화원과 초등독서모임「읽고살고」에 대해

끝으로 우리 문화원과 초등독서모임「읽고살고」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읽고살고」는 초등이 놓치지 않고 가야할 길이라 여긴다고 하였다. 짧은 대답 속에서 오랜 시간 쌓아온 생각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다. 그만큼 중요한 모임이라는 뜻이리라. 문화원은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단체이고 평생 같이 가야할 단체라고 하였다. 교사가 아닌 일반인이 된 지금 자신의 교육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길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문화원에 대한 애정과 교육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으뜸회원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여겨졌다. 그와 함께여서 행복하다 여겨졌다. 행복한 이 길을 같이 걸어 가야겠다.





수상소감

기분 좋은 술자리를 하고 있는 그에게 대뜸 던진 수상소감에 얼떨떨하다는 답이 나왔다. 처한 상황과 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답에 빙긋 웃음이 지어진다. 그 뒤로 수줍은 듯 얼큰한 답이 이어진다.

자신은 문화원에 기여한 것 없이 받기만 했는데 으뜸회원상을 주니 미안한 마음이 든단다. 그리고는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어쩔 으뜸회원상이란 혜택을 많이 누린 사람이 받는 상이 아닐까 한단다. 얼핏 겸손한 답인 것 같지만 혜택을 많이 누리려면 그만큼 꾸준히 그리고 많이 활동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의 말 속에 으뜸회원이 된 답이 있었다.

바다거북 같은 사람

윤영집 선생님은 바다거북 같은 사람이다. 느린 듯 보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해엄쳐 어느새 수만 킬로미터를 가는 바다거북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활동하여 으뜸회원의 봉우리에 올라가신 분이다.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역할을 다하는 선생님의 변함없는 모습과 우리는 어느 순간 마주하게 된다.

윤영집 선생님은 초등독서모임「읽고살고」에서 출석률이 가장 좋은 분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고된 일이 있어도 바쁜 일이 있어도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그 자리에 계셨고 도움의 요청에는 언제나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축하의 자리를 빌려 그 동안의 감사의 말도 같이 전하고 싶다.

창의적인 생각이 쑥쑥, 미술의 대가

윤영집 선생님하면 '장승' 이 떠오른다. '우리 전통문화' 를 주제로 한 초등 독서학교 때 장승 만들기 체험을 계획했었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였다. 나무로 깎자니 시간도 부담이었고 위험요소도 컸다. 종이로만 하자니 장승을 세울 수가 없어 아쉬움이 남았더랬다. 그때 윤영집 선생님께서 종이를 말고 위아래에 종이접을 넣어 받쳐 세우자는 제안을 하셨고 우리는 만장일치로 그 생각에 동의하였다. 장승 만들기는 적은 노력과 시간으로 큰 효과와 만족을 가져왔던 활동으로 기억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엄두도 못내는 활동들을 선생님 덕에 독서학교 활동으로 할 수 있었는데 벽화 그리기나 바닥 전체를 그림으로 그리기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활동을 계획했을 때 기대했던 것을 뛰어넘는 작품이 결과로 나올 때 마다 선생님의 얼굴을 다시 한 번 바라보게 된다.

우리 문화원과 초등독서모임「읽고살고」에 대해

서글서글한 웃음을 지니고 있는 그에게 「청소년교육문화원」과 초등독서모임「읽고살고」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간결한 답이 돌아온다. 다양한 교육문화 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학생들과 동료교사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모임과 단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금의 자신이 그 혜택을 받은 사람에 속한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활동이 100%이라면 자신이 받은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200%, 300%의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도 했다. 묵묵히 수만 킬로미터를 해엄치는 바다거북 같은 그가 한 묵직한 말하기에 든든함이 밀려온다. 그와 함께 하며 그의 행보를 지켜볼 행복한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다시 한 번 으뜸회원상을 수상한 윤영집 선생님에게 축하의 말 전한다.

박현숙 선생님의 학급경영 이야기

날개 없는 천사들과 일구는 행복 이야기 ○

박 현 숙(진안 동향중 3학년 담임)



용담호의 유장함과 천반산의 위엄이 함께 하는 죽도 굽이굽이 길을 지나고 나면 노란 은행잎으로 물든 듯 단아한 모습의 동향중학교가 나타난다. 이곳에서 만나는 3학년 10명의 천사들은 10년의 생활을 변함없는 우정으로 보내고 있는 멋진 아이들이다.

고입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야 하는 고단함 가득한 3학년 생활을 어떻게 하면 거뜰하게 이겨내게 할 것인가가 학급운영의 고민이었다. 사람이란 숨 쉴 구멍이 있어야 에너지도 샘솟는 법! 건강한 에너지를 충전한 후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게 3학년 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로 건강한 “숨”의 시간을 계획했다.

10인 10색이라 했던가? 10명의 아이들이지만 나에게서는 100명처럼 느껴질 정도로 한사람 한사람의 무게감을 컸다. 아주 가까이에서 아이들의 우주를 들여다보는 무게감이랄까?

3월은 비빔밥 파티로 시작했다. 각기 다른 재료들이 섞여 조화로운 비빔밥의 향연을 펼치듯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조화를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4월, 우리는 시험이 끝난 후련함 그대로 전주로 향했다. 엄정화 주연의 ‘베스트셀러’를 감동하며 본 후 근사한 스파게티 전문점에서 은정이의 멋진 생일 파티를 했다. 음식점에서 찍어준 폴로라이드 필름에 담긴 약간 흐린 듯한 이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아직도 뜨끈하게 그 날의 감동과 훈훈함이 그대로 느껴진다. 우리의 우정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있어 참으로 사랑스럽다.

6월은 월드컵과 함께 뜨거운 계절! 우리도 질소냐? 학교에서 월드컵과 함께 하는 1박 2일 캠프를 계획했다. 10명이 들어서기에는 턱없이 넓은 운동장에서 복불복 게임으로 야외 취침조가 정해지고, 드넓은 초원(ㅋㅋ 운동장)에서 삼겹살 파티가 벌어졌다. 너나 할 것 없이 서로서로 음식을 준비하고 먹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새삼 아이들의 성장이 그대로 느껴진다. 1학년 때만 해도 서로 안 하겠다 싸우면서 집에 가겠다고 울기도 하던 녀석들이 이렇게 대견해질 수가……. 역시 아이들은 콩나물이다. 물을 주면 그대로 다 흘러보내 맘 아프게 하더니 이렇게 훌쩍 커버리다니……. 부모님도 그런 마음일까? 몰래 진행한 프로젝트, “부모님을 맞춰라, 하냐! 돌! 셋!” 떡이며 피자, 과일을 바리바리 준비해 오신 부모님과 함께 월드컵 응원전을 신나게 하며 허전한 배를 채우고 이제는 답력을 채울 시간! 미션 조의 대담한 연출로 과학실 인체 모형에 모두들 공포에 떨며 빛 하나 없는 시골의 깜깜한 밤을 웃음으로 채운 우리는 그 행복감 그대로 무작정 인적이 드문 산으로 올라가 희망을 쏘듯 폭죽을 올렸다. 우주도 우리의 울림을 들었을까? 어느새 뿌연 여명이 밝아오고 잠을 자기 아쉬운 우리들은 다

올해 난 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10년이면 생활의 달인이 된다던데. 달인의 여유로움은 커녕 또 새롭게 떨고 있다.

올해는 어떤 빛깔과 목소리로 새 인생을 꾸려갈까?



시 용담호의 새벽을 보러 갔다. 잔잔해진 수면만큼 고요해진 마음으로 인생의 아침을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의 캠프를 마감했다.

7월은 또다시 시험의 계절. 시험은 늘 긴장이다.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는 데 지혜로워진 우리는 시험을 끝내고 이젠 덕유산 맑은 계곡을 찾았다. 비가 출출히 내려 입산 통제였으나 가까운 곳을 가볍게 산책하고 오겠다는 말씀으로 안내원의 고마운 걱정을 뒤로 한 채, 어느 때보다 짜릿한 물놀이를 즐긴 우리들. 말수 적고 정색남이라 불리던 종남이는 멋진 다이빙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 주었고, 비를 맞으며 맨발로 숲길을 걷는 서로를 보며, 꼭 아프리카 원주민 같다며 배꼽을 잡았다. 돌아오는 길에 먹었던 자장면의 맛을 어디에서 또 맛볼 수 있으랴.

이젠 고입선발고사가 가까워져 아이들이 예민해졌다. 동향의 가을하늘보다 아름다운 하늘을 본 적이 없는데 아이들은 교정의 은행나무도, 시리디 시린 가을하늘도 보지 못한다. 그것이 안타까워 10월 시험이 끝나고는 멀리 가지도 못하고 삼겹살 가든(ㅋㅋ 학교 운동장) 파티를 했다. 언제나 지각으로 말썽을 부리는 현규는 학급 행사 때마다 늘 아빠가 된다. 오늘도 현규가 구워주는 삼겹살은 입에서 살살 녹는다. 아무도 없는 학교에서 운동장까지 울리게 음악을 틀고 여유롭게 바닥에 누워 하늘도 보고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며 여유를 부린 어느 가을의 멋진 날. 이젠 서로가 가족 같다.

드디어 고입선발고사가 끝났다. 10명의 아이들은 더 큰 날갯짓을 위해 각자의 길을 갈 것이다. 중학교 시절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새로워질 앞날을 생각하는 여수 향일암 기차 일출여행을 떠났다. 여행 내내 허물없는 가족 같아서 늘 편안한 우리들. 동향은 눈이 펄펄 온다던데, 따뜻한 햇살에 맑디맑은 호수 같은 향일암 앞 바다를 보며 우리는 우정과 사랑과 꿈을 노래했다. 아이들의 마음에 늘 이 바다 같은 평화로움이 깃들기를 소망한다.

1년, 교사에게 1년은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할 만큼 질적으로 긴 시간이다. 아이들은 이 1년 동안 방황을 하기도, 상처를 받기도, 성숙해지기도 한다. 이 속에서 교사는 그저 콩나물의 물이다. 아니 '그저'가 아니라 '귀한' 콩나물의 물이다.

소규모 학교에서만 누릴 수 있는 가족 같은 학급 운영. 이 소중한 경험을 가질 수 있어 난 더없이 행복한 교사다. 올해 난 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10년이면 생활의 달인이 된다던데. 달인의 여유로움은 커녕 또 새롭게 떨고 있다. 올해는 어떤 빛깔과 목소리로 새 인생을 꾸려갈까?



황경택 선생님의 생태놀이 체험

우리 소식지에 '꼬마애벌레 말강이'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생태놀이 코디네이터 겸 만화가 황경택 작가 (eco-toon@hanmail.net)는 주변에 흔히 보이는 자연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림으로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재미난 놀이를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꼬마애벌레 말강이』가 책을 통해 세상에 나오게 따라 연재를 멈추고, 이번 호부터 황작가의 생태놀이를 새롭게 연재합니다. - 편집자

* 놀이 소개 - 이 놀이 어때요?

봄이 되니 여기저기에서 식물들이 새롭게 싹을 내고, 꽃도 피워냅니다. 집 앞 공원이나 길가를 지나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식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만의 놀라운 삶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아내려면 관찰을 잘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관찰을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간단하고 쉬운 놀이를 소개해 드릴게요.



숲속
액자

■ 놀이 방법

- 마분지처럼 두꺼운 종이를 준비한다.
- 종이를 액자모양으로 잘라서 사각형 틀을 만든다.
- 종이액자를 들고 밖으로 나간다.
- 집안에 있는 예쁜 액자처럼 멋진 그림을 밖에서 찾아내자고 말한다.
-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발견됐다면 그 부분이 보일 수 있게 액자를 놓는다.
- 예) 나뭇가지에 걸어놓기, 이끼가 자라고 있는 보도 블록위에 놓기
- 액자를 다 놓았다면 다른 사람의 액자는 어떤 풍경을 담아냈을지 천천히 감상한다.
- 평상시엔 그냥 지나치던 것도 액자를 이용해서 풍경을 담아내듯이 보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고, 느낌도 색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 그렇듯이 이제부터는 주변을 바라볼 때 액자에 담듯이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주변을 관찰한다.
- 관찰한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야기한다.

선생님 팁!

- 액자를 만들 때 가급적 주변과 다른 색으로 하는 게 좋다.
- 예) 검정색, 흰색
- 놀이에 참가하는 인원이 많을 땐 한 사람당 한 개를 나눠 주면 좋지만 한두 명일 땐 1인 당 2~3개의 액자를 나눠 주는 것도 좋다.
- 액자를 설치하고 포스트잇이나 견출지 등을 이용해서 제목을 붙여보는 것도 좋다.
- 액자 모양은 사각형을 이외에 텔레비전이나 카메라 등의 형태로 만들어도 좋다.



미리보기로
만나보세요~



꼬마애벌레 말강이

1권 _궁금한 건 못참아! | 2권 _심심한 건 더 못참아!

재미있게 깨닫고 배우는 생태 지식

소통과 성장을 담은 자연과 삶의 이야기



글과 그림을 그린 황경택은 만화가이자 생태놀이 코디네이터입니다.
매일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며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데 주로 풀과 나무, 곤충을 그립니다.
꼬마애벌레 말강이는 오랜 시간의 꾸준한 공부 속에서 탄생한 만화입니다.
때론 까칠하고 때론 부드럽고, 때론 엉뚱한 말강이를 따라 킁킁 웃다보면 놀라운 깨달음의 순간과 뭉클한 감동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까칠하고 건방진 애벌레가 보여주는

자연과 삶의 이야기

황경택 글·그림 1권 192쪽, 2권 176쪽 | 값 각권 9,500원
ISBN 1권 978-89-7139-8579 | 2권 978-89-7139-8586
세트 978-89-7139-8562

숲을 꿈꾸는
소나무의
어린이 책들



소나무

www.sonamoobook.co.kr

주소 121-830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1-9 소나무출판사

책임 편집 장 만 책임 마케팅 박수희 전화 375-5784

이메일 sonamoopub@empas.com

팩스 375-5789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새 가족이 되신 신입회원님을 환영합니다.

신입 회원 (가입일 순)

강원길 (전주공고 교사)

한종윤 (전주공고 교사)

김경노 (시민 회원)

최전심 (교육장-군산교육지원청)

이지숙 (전주공고 교사)

최종숙 (전주선화학교 교사)

이승일 (이일여고 교사)

한공수 (이일여고 교사)

엄미혜 (전주공고 교사)

회원동지

- ▶ 우리 문화원 창립 때부터 부설 청소년교육연구소장을 맡아 애써 오신 **최병흔** (전북체육중·고) 선생님께서 그동안 우리 전북의 대표적인 대안 언론이라 할 수 있는 월간 '열린 전북'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해오셨는데요. 올해 1월부터는 편집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장을 그만두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선생님과 '열린 전북'의 활약 기대합니다.
- ▶ **홍인재**(전주 서신초) 선생님께서 2011 전북일보 신춘문예(동화부문)에 당선 되셨습니다. 학교 일에 문화원 일, 그 많은 일 다 하시면서 언제 그런 작업까지 하셨는지... 문화원의 자부심을 다시 한 번 높여주시는군요. 동화작가 등단 축하드려요.
- ▶ **송정미**(임실 마암초) 선생님 결혼 소식~! 축하드려요. 2월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셨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하시길 바라요.
- ▶ **김정옥** 선생님께서 교감 승진하셔서 삼례여중으로 발령이 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 ▶ 지난해 말, 전문직 시험에 합격하신 **이영환** 장학사님(전 이사, 사무처장)은 도교육청 교육진흥과에서 혁신학교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고, **주중일** 장학사님(전 이사)은 전라북도교원연수원에서 근무하시게 되었습니다. 좋은 역할 기대합니다.

▶ **김종필** 선생님께서 지난 3월, 『경제학자 박승 이야기』(울곡출판사)를 집필 출간하셨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경제학자 박승 선생이 우리 전북의 김제 출신이고, 모교인 백석초등학교에 도서관을 지어 기증하며 전 재산과 자신의 장기를 사회에 모두 기부하기로 한 숭고함이 인연이 되어 집필을 하게 되었는데, 어린이나 어른 모두 인간 박승의 삶과 인간적 면모를 알기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엮어냈다는 평이다. 김종필 선생님은 이외에도 문화원 회원이 된 뒤로 『양코르 왕국에서 날아온 나비』, 『또 걸렸나?』 등의 동화책을 펴낸 바 있다. 문화원 회원이 되면 글도 더 잘 써지나?ㅋㅋㅋ

▶ 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꿈을 찾아가는 청소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의 독서동아리 '책'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세상', '책.만.세.'가 2010 교과연구 활동에서 전라북도 교과연구연구회 활동 단체 중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책.만.세.' 선생님들, 드디어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노력해온 보람이 또 하나의 결실을 맺는군요.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교육단체 소식

▶ (가칭)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 발기인 총회

익산 교육과 청소년 문화를 위해 애써온 익산교육시민연대가 한 차원 높은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지난 4월 8일(금),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칭)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문화원 이사이신 **한은수** 원광대 교장 선생님께서 이사장으로, **정우식** 원장과 **강유희** 이사가 이사로 참여하고, **박일범** 고문, **이미영** 이사장, **김영춘**, **황만길** 자문위원이 자문위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 남북평화재단 익산본부 창립대회

남북평화재단 익산본부가 3월 22일(화) 오후 6시, 익산 소리문화

예술회관에서 창립대회를 성대하게 열면서 뜻 깊은 창립을 했습니다. 300여명이 함께한 창립대회는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정세현** 원광대 총장의 기념강연과 가수 **서유석** 씨의 감미로운 기념 공연이 이어져 더욱 빛났습니다.

▶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창립총회

교육 행·재정 감시와 교육 대안 창출, 공익 실현을 위한 시민행동 등을 표방한 교육단체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227-3893)가 지난 2월 24일 7시 30분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중등

이 름	신 입	구 입
고경미 선생님	전주아중중	완주고산중
고재근 선생님	전주교육지원청	전주영상미디어고
권오인 선생님	정읍제일고	무주설천고
권윤아 선생님	군산회현중	전주용소중
김점용 선생님	이리공고	전북사대부고
김정옥 교감선생님	삼례여자중	이리북중 교사
김한중 선생님	전주동중	김제용지중
김현봉 선생님	전주용소중	전주평화중
나인숙 선생님	김제여중	김제교육청
남상팔 선생님	이리공고	전주공고
문병원 선생님	진안중	군산산북중
박진영 선생님	남원월락초	남원중앙초
박현숙 선생님	전주우아중	진안동향중
백선희 선생님	완주고산중	장수중
서정호 선생님	김제중	전주양지중
송영아 선생님	부안제일고	전주고
유인선 선생님	진안동향중	전주신일중
유춘재 선생님	진안여중	동계중
윤영금 선생님	순창교육지원청	전주평화중
이동욱 교육연구사님	전북학생교육원	온고을중
이미영 선생님	전북사대부고	이리공고
임영배 선생님	이리남중	완주고산고
장명환 선생님	임실삼계중	전주서곡중
장재성 선생님	전주서중	이리남중
정현숙 선생님	완주삼례공고	전주공고
조봉오 선생님	김제금구중	남원한빛중
지성아 선생님	전북기계공고	군산산북중
차선미 선생님	정읍정일여중	전주공고
최우석 선생님	정읍산내중 행정실	정읍중 행정실
최영이 선생님	군산상업고	전주공고
최제윤 선생님	진안안천중	전주온고을중
추창훈 선생님	전주서곡중	순창여중
함현구 선생님	군산고	이리여고
허순애 선생님	이리공고	전주공고
현안옥 선생님	전주술내고	장수계남중
황성십 선생님	진안동향중	익산아양중
황순진 선생님	전주완산중	전주완산여고
황희경 선생님	전주오송중	전주양지중

초등

이 름	신 입	구 입
권민지 선생님	김제동초	전주서문초
권인창 선생님	완주운주초	완주삼례동초
김광옥 선생님	정읍정남초	정읍서신초
김동오 선생님	남원초	남원금지초
김미리 선생님	김제만경초	전주한들초
김종영 선생님	남원주생초	남원중앙초
라이현 선생님	전주신성초	전주남초
박금영 선생님	순창금과초	순창동산초
신성하 선생님	전주서신초	전주완산초
신화순 선생님	남원중앙초	남원이백초
엄정영 선생님	전주삼천초	정읍북면초
오상희 선생님	전주효림초	전주지곡초
유성례 선생님	전주서신초	전주서곡초
유혜린 선생님	군산소룡초	장수장계초
윤영집 선생님	익산금마초	전주아중초
이미영 선생님	익산초	마한교육문화회관 익산분관
이복희 선생님	전주문학초	완주삼례중앙초
이영환 장학사님	전리북도교육청	전주인후초
이정옥 선생님	전주서곡초	전주만수초
임은하 지역사회교육전문가님	전주교육지원청	전주완산초
임현주 장학사님	진안교육지원청	무주부당초
전지민 선생님	전주서신초	정읍한솔초
정영민 선생님	정읍능교초	전주기린초
정은숙 선생님	전주만수초	완주봉동초
주중일 교육연구사님	전북교육연수원	익산금마초
진상덕 선생님	순창동산초	순창팔덕초
채영분 선생님	이리동초	이리서초
최상렬 선생님	전주서신초	전주삼천남초

좋은 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후원 계좌 | 전북은행 543-13-0310862
사)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우리 문화원 회원인 홍인재 회원이 2011년 봄을 맞이하는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습작을 시작한지 2년여 만에 신춘문에 등단이라는 쾌거를 이룬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소식지에 실어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편집자

홍인재 회원 전북일보 신춘문에 당선작

탈

그것은 문구점 한쪽 구석진 곳에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채 처박혀 있었어. 아이들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리는 거야. 무심코 집어 들었어. 그리고 숨을 잔뜩 들이마셨다가 커커이 쌓인 먼지를 쫓 먹던 힘을 내어 불어내고 손으로 대충 닦았어. 불그레한 얼굴에 이마는 툭 튀어 나오고 눈은 뽕 뚫려 있었어. 주먹코는 납작한데 입은 헤벌리고 있는 거야. 참, 불만하더군.

-그래, 바로 이거야.

등교시간 문구점 안은 학교에 준비물을 사 가려는 아이들로 북새통이었어. 모두들 서로 먼저 계산을 하려고 아우성이었지.

-짜식들, 학교에 좀 늦으면 어때서.

난 댄 뒤에서 느긋하게 여유를 부리다 아이들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계산대로 갔어.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어, 수민이 왔니? 근데 이게 뭐지. 처음 보는 건데. 이거 어디에 있었니?"

아저씨가 그것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어.

"저 안쪽 선반예요. 얼마예요? 나 많이 늦었는데."

"글쎄, 가격을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얼마를 받아야 하나. 그냥 오백 원만 내라."

학교 가는 길에 바람이 잦아. 휘파람이 절로 나더군. 맘에 드는 물건을 손에 넣어서 정말 기뻐서.

'땡'하고 2교시 끝 종이 울리자마자 난 그것을 꺼냈어. 순식간에 아이들이 내 주변으로 우르르 몰려들더니 모두들 한마디씩 했지.

"우와, 이거 재밌게 생겼다."

"한번 써보면 안될까?"

난 애들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어. 그리고 거들먹거리며 절대로 안 된다고 했지. 그렇게 애들을 따돌리고 그것을 요리조리 살펴보니 안쪽에 깨알 같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 마법의 주문처럼.

'억울할 때 탈을 써봐.'

미술시간은 정말 시끄러웠지. 그런데 그 틈을 비집고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어. 냄새는 나지 않았지만 나는 금방 눈치 챘지. 내 짝꿍 찬이가 몰래 방귀 똥 것을 말아야. 이런 기회를 그냥 넘길 내가 아니지. 나는 별떡 일어 나 손나팔을 만들었어.

"아. 아. 주민여러분. 이진 실제 상황입니다. 김찬. 아.아. 바로 우리 반 김찬이라는 아이가 똥방귀를 끼었으니 모두 방독면을 쓰고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교실은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 그 시끄럽던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 내가 흠뻑을 친 거야. 잠시 후 상황 파악을 했는지 남자 아이들은 교실바닥을 때굴때굴 구르고 여자아이들은 책상을 치며 웃었어. 찬이만 얼굴이 빨개진 채 주먹을 치켜들고 나를 노려보았어. 눈에는 물기가 가득했지.

바로 그때였어.

"아야! 아……. 아파요."

순간 하늘이 노래지고 별 수천 개가 떴어. 어찌나 아픈지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였어. 찬이가 아닌 벌름코에게 컷볼을 잡혔어. 벌름코가 누구냐고? 벌름코는 바로 우리 선생님이야. 화가 났을 때마다 코를 벌름거리린다고 우리가 지어준 별명이지. 벌름코가 눈을 치켜뜨고 양쪽 귀를 잡아 당겼어.

"너 이놈의 자식. 또 사고 쳤지?"

벌름코는 그 우악스러운 손으로 내 귀를 잡고 한껏 위로 끌어올렸어. 난 양쪽 귀를 잡혀 허공에 뜬 채 발을 동동 굴렀어. 컷볼에 불이 난 것 같았지 뭐야. 한참 후에야 벌름코가 귀를 놓아주었어.

근데 너무 아프고 억울해서 질금질금 눈물이 새어 나오는 거야. 아이들에게 눈물을 보이는 것이 창피해서 그 탈을 얼굴에 썼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억울했어. 내가 놀리긴 했지만 찬이가 망귀를 뺀 건 사실이잖아.

-억울해. 정말 억울해. 나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탈을 쓴 채 벌름코를 노려보며 중얼거렸어. 그러자 그 일이 터진 거야. 그 이상한 탈이 내 얼굴에 딱 달라붙으면서 녹는 거 같았어. 약간 따끔거렸어. 머리가 잠시 어지러웠고 몸도 조금 붓 뜬 것 같았지.

"어, 선생님이 왜 여기 앉아 있어요?"

바로 그때, 옆에서 애들이 웅성거리며 나한테 말하는 거야.

"선생님,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돼요?"

이어서 성재가 날 보며 물었어.

-애가 미쳤나. 왜 날 보고 선생님이라.

근데 더욱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야. 앞을 보니 저 멀리 벌름코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린 눈이 딱 미주쳤어. 놀라 등잔만 해진 눈이 정말 볼만했어. 난 순간 이 상황이 어렴풋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나 아직 벌름코는 상황 파악을 못 했는지 성재한테 큰 소리로 말하는 거야.

"안 돼. 수업 끝나고 가."

그러자 성재가 큰소리로 말했어.

"야, 수민이 너 이 자식. 왜 네가 거기에 앉아 있어. 그리고 선생님한테 물었는데 네가 왜 대답해?"

벌름코가 벌떡 일어섰어. 그리고는 바람처럼 달려와서는 평소 버릇대로 성재 머리에 꿀밤을 먹였어. 그러자 성재가 벌름코한테 달려들었어. 난 이 모든 상황이 머릿속에서 재빠르게 정리가 되었어. 그래, 그랬어. 내가 선생님이 되어 있었던 거야. 선생님은 내가 되어 있었고. 웃음이 쿡쿡 나왔어. 난 벌름코처럼 큰 소리로 힘차게 말했어.

"이놈의 자식들 그만하지 못해."

간신히 돌을 떼어놓고 난 후 양쪽 다 컷볼을 한껏 잡아 당겼지. 그리고 벌름코 머리를 한 대 더 쥐어박았어. 벌름코 눈에서 불꽃이 '파박'하고 튀었어.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벌름코를 향해 씩하고 웃어주었어. 벌름코가 뭐라고 하려다 입을 꼭 다무는 게 보였어. 아마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었겠지.

이제 교실에서는 내가 왕이었어. 뭐든 내 맘대로 할 수 있었지. 사회시간에는 자율학습을 시켰어. 책상 사이를 걸어 다니며 숨소리도 못 내게 했지. 떠드는 애들은 귀를 잡아 당겼어. 특히 뒷자리에 앉아서 힘세다고 거들먹거리던 놈들을 주로 말이야. 국어시간에는 인심을 썼어. 오락시간을 주니까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지. 모두들 신나게 떠들었어. 하도 떠드니까 옆 반 선생님이 우리 교실을 들여다보러 와서 내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가웃하면서 그냥 가버렸어.

근데 4교시 수학시간이 문제였어. 또 자습을 시키려고 하는데 민지가 손을 번쩍 들고 말하는 거야.

"선생님, 질문 하나 해도 돼요?"

그리고는 내 대답도 듣지 않고 수학책을 들고 앞으로 나오는 거야. 민지는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이였어. 하얀 얼굴에 긴 생머리를 멀리서만 봐도 심장이 쿵닥거렸거든. 그런 민지가 내 옆에 얼굴을 바짝 대고 문제를 물어보는데 나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렸어.

-이대로 시간이 멈추어 버렸으면 좋겠다.

그때 내 얼굴에 아마 종이를 갖다 대면 불이 붙고도 남았을 거야. 그런데 아뿔싸. 민지는 도형을 그리는 방법을 물어보았어. 곱하기 정도라면 모를까 도형을 어떻게 그리지? 어떻게든 민지에게 잘 보여야 하는데 내 머릿속이 캄캄한 터널 같았어. 아이들이 숨을 죽인 채 날 바라보았어. 서른 개의 까만 눈동자가 일시에 날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았지. 등에서 땀이 주르륵 흘러 내렸어.

-아! 어떻게 해야 하지.

앞이 캄캄했어. 그런데 다시 또 누군가 손을 들었어. 벌름코였어. 나와 눈이 마주친 벌름코가 한쪽 눈을 찡긐했어.

"선생님, 그거 제가 설명하면 안 될까요?"

벌름코가 또박또박 말했어. 구세주를 만난 것 같았어. 난 못이기는 척하고 벌름코에게 기회를 주었지. 벌름코가 매끄럽게 설명을 마치고 자리에 앉자 박소리가 터져 나왔어.

"와! 수민아. 너 정말 잘한다."

아이들이 모두 한 마디씩 했지. 민지가 살짝 웃는 모습이 보였어. 다행히 벌름코 덕분에 위기를 넘겼어.

-벌름코, 아까 내 귀 잡아당긴 것 용서해줄게. 이제 억울한 거 다 가셨어.

바로 그 때였어. 내 중얼거림이 끝남과 동시에 약간 어지러움이 느껴졌어.

"수민아, 탈 벗고 이제 네 자리로 돌아가야지."

벌름코가 웃으며 선생님 의자에 앉아있던 내 어깨를 가볍게 토닥거렸어. 그리고 보니 아직까지도 내 얼굴에 아까 그 탈이 씌워져 있었던 거야.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교실에 벌름코와 나만 남았어. 선생님이 코를 벌름거리며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어. 벌름거리는 코를 보자 가슴이 쿵당쿵당 뛰었어. 한참 후에 벌름코가 씩 웃으며 말했어.

"수민아, 그 탈 좀 빌릴 수 없을까?" *

당선소감



"동화 다시 만나면서 행복한 꿈" - 홍인재

2년 전이군요. 아이들과 독서캠프에서 꿈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게. 나는 그 때 꿈은 어릴 적에만 갖는 것이 아니라고, 살아있는 동안 내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그리고 내 꿈은 내가 쓴 동화를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들려주는 거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교사가 되고 아이들과 함께하면서부터 잊어버렸던 동화를 만나면서부터 꿈을 꾸었으나 봅니다. 동화를 쓰면서 동화속의 수민이를 만나고 수민이가 되어 생각하고 수민이가 되어 웃으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수민이도 되고 방귀 똥 찬이도 되고 민지가 되기도 하면서 즐거웠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왕벚나무 할아버지도 되고 연주도 되고 로빈이도 되어 아이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길게 꿈을 꾸고 싶습니다.

이 긴 꿈을 꿀 수 있게 다리를 놓아준 우석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숙제를 미루고 게으름을 피워도 언제나 너그럽게 봐 주시고 술 사주시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던 그분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내내 당신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뒤적이고 연극을 보고 시를 읽으면서 같이 공부했던 문창과 대학원 학우들도 고맙습니다. 그대들과 앞으로도 시와 동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때때로 같이 술잔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리면서 교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준 사랑하는 딸과 아들, 그리고 같이 이야기 나눠주면서 격려해주던 남편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글을 지면에 올려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홍인재 [전주서신초 교사, 1967년 입실 출생, 전주교대 졸업, 우석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에 재학 중]

「북녘 어린이 콩우유 사업」 후원자 모집

지금 이 기회입니다. 북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우리 문화원은 매월 1구좌 5,000원씩의 후원금을 모아 평양 양각도 탁아소 등 북녘 어린이들에게 콩우유를 보내는 「북녘 어린이 콩우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5,000원이면 북녘 어린이 1명에게 매일 1잔의 콩우유가 공급됩니다. 남측에서 기계와 콩우유 재료를 보내면 북측에서 매일 신선한 콩우유를 만들어 제공합니다.

2006년 2월에 시작하여 현재는 매월 약 130구좌(매월 65만원)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www.blue21.or.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담당자(장재성, rudnf78@hanmail.net, 010-4655-9803)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됩니다.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후원 계좌 | 전북은행 543-13-0310862 사)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 약정해주신 월 후원금은 약정기일(2일/23일)에 출금되며, 혹 통장 잔고 부족 및 기타 사유로 출금이 안 된 경우 다음 달에 합산하여 출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 내역 중 궁금하신 내용은 사무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 905-0218

〈 ※ 홈페이지(www.blue21.or.kr)에서 보다 간편하게 회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 사는 기쁨, 함께 여는 통일 세상 회원 / 후원회원 가입 신청서

이 름	회 원 (), 후원회원 ()		
생 년 월 일	(남, 여)		
직 업 / 직 장	담당업무(교과)		
직 장 전 화	집 전 화		
손 전 화			
E-mail 주소			
직 장 주 소			
자 택 주 소			

* 관심 분야(2개 √표)

() 청소년 정책	() 청소년 인권 · 복지	() 청소년 문화 · 동아리
() 독서교육	() 초등교육	() 통일 · 역사
() 지역교육 · 교육자치	() 환경 · 생태	() 학급운영
() 진로 · 상담	() 성교육	() 학부모교육
() 인터넷 · 정보	() 학교운영위	기타 ()

2 0 년 월 일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JeonBuk Teenagers Educational & Cultural Center

초대합니다

이제 막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혁신학교의 목표는 학교 문화 혁신일 것입니다.

늘 한 발짝씩 앞서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오신

김진경(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더불어 지난 2월 핀란드 등으로 혁신학교 연수를 다녀온

전 정책실장 **최선호**(원주봉서중) 선생님이 말꼬를 트면서 보고회를 겸한 논의의 장을 마련합니다.

소중한 자리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문화 혁신과 교사·학부모의 역할

김진경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 **초청 강연**

혁신학교 핀란드 연수 보고회

일시 : 2011년 4월 19일(화) 저녁 6시 30분 ~

장소 :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교육연수실(전주근영여고 정문 앞 3층)

초청강사
김진경

- 2005~2006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
- 시인 '오월사' 동인
- 교과별 전국 교사모임 조직 : '교과연구', '개편교과서 지침서' 제작
- 프랑스 아동청소년 문학상 앵코르티블상 수상: 판타지 동화『고양이 학교』(전5권)
- 88년 출판사 '푸른나무' 설립 : '거꾸로 읽는' 시리즈 - '스스로를 비둘기로 믿는 까치' (김진경), '똑같은 것보다 다 다른 게 더 좋아' (윤구병), '거꾸로 읽는 세계사' (유시민) 출판
- <갈문리의 아이들>, <광화문을 지나며>, <우리 시대의 예수>

* 식사: 문화원에서 간단한 떡과 음료 준비합니다.

《나들이 함께가요~》

회원 가족 기행 참가자 모집

봄꽃이 절정인 4월입니다.

봄꽃 만발한 멋진 곳으로 함께 나들이를 떠납니다.

- ▶ 일시 : 4월 23일(토)
- ▶ 고창읍성(모양성) 꽃구경, 성 뺑기
- ▶ 어른 1만원, 청소년 5천원(선착순)

▶ 문의 : ☎ 905-0218

▶ 일정

- 08:30 : 도교육청 주차장 출발
- 12:30 : 고창읍성 기행
- 14:00 : 읍내 점심식사
- 16:30 : 사찰 탐방
- 18:00 : 집으로

《미리미리 참가 준비하세요~》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체육한마당 제3회 이사장배 배드민턴 대회

봄꽃이 절정인 4월입니다.

봄꽃 만발한 멋진 곳으로 함께 나들이를 떠납니다.

♣ 일시 : 2011년 5월 7일(토) 오후 2시~

♣ 장소 : 전주 서신초등학교 강당

♣ 종목 : 배드민턴 대회 / 친선 배구

▶ 경기 종목 : 배드민턴(남자복식, 혼합복식) - 2인 1조 신청

- 파트너 없을 시 개인 참가 : 조직위에서 파트너 구성
- 자신의 배드민턴 실력 고려 완전초급 / 초급 / 중급 신청
- 비회원 참여: 반드시 회원 1명과 함께 팀 구성 원칙
- 셔틀콕 무료 제공 / 운동복, 운동화, 라켓 본인 지참

▶ 문의 : ☎ 905-0218

▶ 세부사항은 <http://blue21.or.kr> 추후 공지



사단
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Jeonbuk Teenagers Educational & Cultural Center

www.blue21.or.kr

560-837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55-8(3층) / ☎ 063) 905-0218 Fax 063) 227-0650